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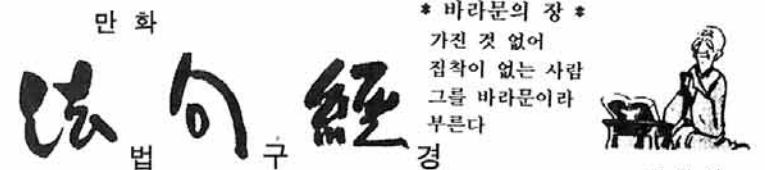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조직된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 (총재 성타)가 지난 9월 30일 파라미타청소년협회'로 사단법인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청소년포교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15일 포교원에서 파라미타 사단법인 취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사업을 비롯 97년도 청소년 포교사업 청

을 밝힌다. 이날 성타스님은 "파라미타가 사단법인 허가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게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산·전주지부 결성은 금년내로 마무리하고 내년말까지는 사찰 및 학교단위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15개지부 1백 83개지의 7백여 분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라미타는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전국 각지역마다 지부·지회·분회를 설립하는등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23일 개최된 상주지회 발대식 모습)



*** 바라문의 장 ***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만화 법구경

이창원

현수자동차 배리랑! 마선생님 전화예요. 아! 아침부터 추운... 아! 음식이... 왜 그래?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뭐!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김선생님! 마선생님이 정말 달라 지셨어요. 내 일보다 고객 일이 우선 이니까. 좀 나갔다 와야겠군. 마선생님 지금 사모님한테 이리도 나오시라 하시고선... 아! 마선생님! 마선생님이 정말 달라 지셨어요. 김선생님! 마선생님이 정말 달라 지셨어요. 그 일 때문에 날 부른거야. 이거 왜 이래 내겐 심각한 문제야

아무것도 존경스럽게 보일거야. 교동은 물론이고 호텔 보이까지... 아무래도 외제를 굴러야 하나봐. 그 일 때문에 날 부른거야. 이거 왜 이래 내겐 심각한 문제야

내 차 적당한 값으로 처분해줘. 바꿔야겠어.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옛날 인도 최고의 귀족계급을 '브라호만'이라고 하지. 부처님께서는 그 브라호만을 해탈을 성취한 비구를 브라호만이란 이름을 쓰셨어

어느때 사왔던 귀족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을 브라호만이라 부르시는 것을 그들이 귀족인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내역시 귀족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브라호만으로 불리워야 할 것이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사죄했더니 오! 사윗치여. 여래는 그가 단지 귀족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브라호만이라 부르지 않느니라. 정신적인 타락과 마음의 더러움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모든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끊었을 때 그를 브라호만이라 부르니라. 그리고는 이런 계승을 음으셨지. 바라문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고 바라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귀족이라 불려야 한다 그는 자기 소유물에 얽매어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소유물이란 가문(家門)을 가리킨다

파라미타 사단법인 인가 청소년포교 활기 '전망'

사진을 제시했다. 이급 발표된 하반기 계획안은 △청소년 포교연구실 개설 운영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 및 단원수첩 발간 △청소년 지도자 연수 △지부 및 지회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라미타는 이 가운데 금년내로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포교연구실의 개설·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신형, 수련, 프로그램개발, 상담 및 자료개발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되는 청소년포교연구실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벌인다.

특히 파라미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을 '효경사상 실천의 해'로 정하고 효사상실현의 대법회, 부모은중경사경대회, 효실현운동대회, 노인공경 자원봉사대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이밖에도 창립1주년기념 문화대축제, 3대(조부모 부모 본인)통합 수련회, 소식이(파라미타)발간, 맑은환경가꾸기대회, 연애편지 등을 비롯 대안불자청소년과의 교류, 인도성지순례 및 빈민촌 봉사활동, 만

신력을 알고 후원기금조성, 각종 청소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건이 주어지긴 했지만 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파라미타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될 때 재정적인 안정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조직구성이 활성화되고 청소년포교의 시작이 늦은 만큼 오히려 더 많은 포교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근 기자

어린이 포교10년 '책으로'

크신 뜻 은누리애

불교어린이지도자련 창립 10돌 기념 발간 어린이 지도자 27명 제언등 수록

이런 될 것으로 보인다. 종성스님(대전 연화사 주지)은 "불교가 연을 오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교의식, 인쇄, 공간,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사업에 어린이법회(교육)를 의무화해 사찰이 곧 포교의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경일교수(동국대 가정교육과)는 "자녀의 입학이나 취직에는 끝없는 정진과 기도를 하면서도 자녀의 마음자리를 밝혀줄 교화에는 왜 기도 정진하지 않는"고 지적하고 "2천년대 어린이 포교는 가정과 사찰, 불교적 기념으로 설립된 교육단체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재철씨(부산 구동사 신도회장은) "종교교육은 아동의 인격형성은 물론 불교의 복을 넓히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무조건 좋은일을 해라,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좋은 일을 해야 하는가를 경전을 통해 알려주면 자연 불교의 보살정신이 몸에 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혁, 지도자양성과 교재발간 사업, (월간 유아) 불교비방사전, 소년중앙의 선교만화게제를 문제제기한 활동사항 등이 수록된 <크신 뜻 은누리애>는 총 3장 신국판 162쪽으로 구성돼 있다. <근>

'송광사서 선암사까지'

11월 9·10일 '16·17 두차례 원족수련대회 1회 1백명 선학순... 철야정진·산행등 프로다양 된다. 참가대상은 묵언수련의 '출가 4박5일 여름수련대회' 참가자를 이지만 참가를 원하는 친구나 가족 친지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1회당 1백명을 선학순모집하는 가을원족수련대회는 토요일 오후 9시 입재식후 12시부터 자기소개 및 지역별모임, 12시부터 3시까지 철야정진 5시 30분까지 좌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양이 이어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4시간 동안 조계산 원족이 실시된다. 원족은 송광사에서 천자암을 거쳐 선암사까지 4시간 거리를 산행하며 조계산의 가을단

김원우 기자

제2회 한국불교 해외총법원장 대한민국 서울대법회

부처님의 眞理를 지구촌 구석 구석 이 땅끝까지 布教傳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불교 해외총법원장 및 불교계 대식학을 모시고 '한국불교가 國際布教에 主力해야 하는 理由'란 主題下에 아래 같은 題目으로 奉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서울대법회 法席에 主人公이 되시옵길 禱望하옵니다.

— 아 래 —

主題 / 한국불교가 國際布教에 主力해야 하는 理由

題目 : 세계는 한송이 연꽃(世界一花)
法師 : 미국·재미총법원장 승산 행원 대인사(서울 화계사 조실)

題目 : 한국불교와 국제포교
特講 : 한국·철학박사 송석구 박사(동국대학교 총장)

題目 : 한국민 해외 영주는 한민족 국토 확장이다
法師 : 미국·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불교국제포교본찰 뉴욕 佛國寺 開山法主, 서울선학원장)

◆ 때 ... 1996년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곳 ... 한국일보 본관 13층 대강당 (서울 중로구 중학동 14번지)
◆ 전화 ... 한국일보 본사 (02) 724-2114 · 724-2628 · 735-7423
선학원 (02) 732-3327 · 720-8583
탈라선원 (064) 32-8165
뉴욕 佛國寺 (212) 643-9215 뉴저지 미주 국제선원 (201) 928-4201

◆ 주최 : 美國 佛國寺 世界불교포교국제총본회

◆ 주관 : 佛國寺 탈라선원 세계불교포교국제총본회 한국본회 뉴욕국제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후원회

뉴욕 국제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후원회

- 국제포교 기금 \$1,000만불 조성을 위한 -

스님께서는 한국 탐라선원을 1984년에 창건하셨으며, 1988년 올림픽을 치르는 해에 뜻한 바 있어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의 심장부 뉴욕 Manhattan에 불교국제포교본찰 佛國寺를 창건하시고, 이듬해 1989년 부처님 오신 날 국제포교 차원에서 뉴욕시 경찰국의 허가를 받아 Broadway Macy's 백화점, Empair State Building 5A의 코스로 봉축 퍼레이드를 봉행하셨으며, 1989년에 통일 독일 독일 Berlin에 총법원을 개원, 봉불식으로 서구 사회에 한국 佛敎 布教 새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0월에는 미국 뉴저지주F.D. University총장 관사를 매입, 미주 國際佛院을 개원 봉불식에 이어 뉴욕 불국사 宗老 뉴욕국제불교통신대(International Buddhist Communication College of New York)(設立理事長 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초대학장, 철학박사 장승식 교수 <전 동국대 인문과학 대학장>) 현관식에 이어 대학교재 1학년 1·2학기분이 출판됐으며 2학년 교재 원고 마감일이 되어 출판 중에 있습니다. 佛國寺 뉴욕 불국사에 세계불교포교국제총본회 국제총본회장과 뉴욕불교국제 불국사위원회 국제총본회장으로, 1996년에는 세계 18개 국가 참가로 국제적인 축제(다국가 다민족의 인종화합의 장과 인류 평화의 제진)가 봉행된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계기가 되어 뉴욕국제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후원회(후원회장 이운영)가 발족되었습니다.

국제 포교에 뜻이 있는 분으로 동참 및 후원 헌금을 기탁하실 분께서는 아래 국제포교 후원회(총무 김수근 기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국제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후원회

■ 국제포교후원회 온라인 : 332-04-223641 조흥은행(안국동지점)
■ 전화번호 한국 : (02) 990-7846 · 492-3861 · 438-0243 · 720-8583 · (064)32-8165
미국 : 뉴욕 (212) 643-9215 · 뉴저지 (201) 928-4201